순창군이 공공승마장을 완공해 내년부터는 관광객 유치와 군민 여가선용 등에 본격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 공공승마장 완공

57억원 투입… 유소년 승마단 창단 · 청소년 승마체험 운영 등

순창군이 공공승마장을 완공해 내년부터는 관광객 유치와 군민 여가선용 등에 본격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근 팔덕면 구룡리 5-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9,777㎡규모에 실내·외 마장, 마사 및 사무실 등을 갖춘 순창군공공승마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2억원을 포함 총 5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승마장 완공으로 군은 강천산 ~ 공공승마장 ~ 고추장민속마을을 잇는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해 본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순창공공승마장은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의 중간에 있어 체류형 관광객 유치라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 승마장 인근에 축산진흥센터도 본격 운영되면 음식관광과도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더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주와 광주광역시 등 인근 대도시와 차량으로 30분 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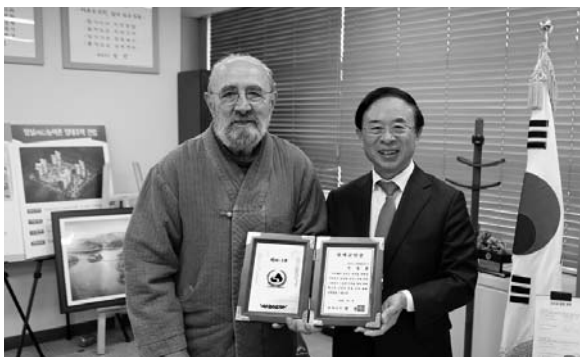
군은 승마장운영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청소년 승마체험 운영 등 군민들이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승용마 조련센터 유치와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본격적 관광연계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여가 선용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핵심 역할을 할 순창공공승마장 하드웨어가 드디어 완공됐다" 며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 운영준비에 철저를 기해 내년 중순 부터는 본격적 운영에 들어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전국 승마체험인구는 83만 406명이며 정기적인 승마 이용객도 4만 3천여명에 이르는 등 승마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승마산업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명예군민 선정

지정환 신부 · 육군포병학교장 최창규 교장 군민증 수여

임실치즈의 아버지인 지정환 신부와 (전)육군 35사단장이자 현재 육군포병학교장인 최창규 교장이 임실군 명예군민에 선정됐다.

지정환 신부는 지난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인연을 맺은 후 1981년 떠날 때까지 17여 년간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특히 임실치즈 창시자로 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역할과 함께 현재도 치즈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적으로 명예 임실군민으로 선정하고 지난 23일 군수실에서 명예 군민증을 수여했다.

또한, 최창규 육군포병학교장은 35사단장 재직 시 지역민을 위해 농번기 일손돕기, 수해복구, 마을 환경개선, 영외 신병수료식개최, 지역 식당이용 등을 통해 군민과 호흡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임실군민으로 선정됐다.

심민 군수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업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임실군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예군민증서는 조례에 근거해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선정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하는 증서이며, 최창규 육군포병학교장에게도 명예 군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치즈산업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낙농업 · 치즈산업 동반성장 가능 세부 실천방안 마련 · 대응전략 등 논의

임실군은 치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도 동부권발전사업인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단장 최병춘), 낙농가, 유가공업체, 치즈체험관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임실치즈·낙농특구 활성화를 위해 낙농업과 치즈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치즈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치즈클러스터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치즈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비롯해 농촌테마공원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고창상하농원을 방문해 현장 학습을 실시한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 치즈산업 성장에 맞춰 임실치즈 산업은 연 10%이상 고속성장 하고 있으나 FTA 확대 등으로 값싼 치즈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임실치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치즈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사로 나선 최준표 한경대 전 교수는 "치즈와 낙농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장형 유가공의 정체성을 살리는 브랜드 메이킹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품군을 통한 시장개척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실치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점검하고 임실치즈만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 역사성을 활용한 문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치즈산업에 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며, "향후 치즈클러스터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치즈 및 낙농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유당문화재단, 한국씨엔티 순창공장 장학금 전달식

(재)유당문화재단(이사장 최상옥)은 최근 한국씨엔티(주) 순창공장에서 2016년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순창군 관내에 연고를 둔 대학생과 고등학생 21명을 선발하여 9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당문화재단 최상옥 이사장을 대신하여 장학금을 전달한 한국씨엔티(주) 김훈석 사장은 유당 최상옥 이사장님의 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맞춰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며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에게 격려했다.

유당문화재단은 유능한 인재와 불우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발전과 지역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사업기반을 둔 남화토건(주) 유당 최상옥 회장이 1999년에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순창군 관내 우수한 인력배출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AI 청정 지역 방역 '총력'

가금농가 소독 · 예찰활동 등

남원시가 AI 청정 지역 사수를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전남 및 충북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어 도내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질병유입 방지를 위해 소독초소 운영, 하천 주변 가금농가 소독 및 농가 예찰활동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특히, 남원시는 전라남도와 경계하고 있어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장소 2개소, 이동통제 초소 2개소 등 총 4개 소독초소를 설치하여, 11월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장소에서 세척에 준하는 소독과 차량 내부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초소에서 발급한 소독 필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관내 축산농가에 방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요천, 섬진강, 금풍저수지 주변 가금농가에 시 방역차량을 전담 배치하여 매일 농가 예찰과 소독을 실시하며, 그 외 전농가에 대해서는 가금 전담공무원이 매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출입시 동별 장화 및 발판소독조를 각각 비치하여 철새의 분변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고,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광주간 버스 직통노선 내년 3월쯤 운행 가능성

노선변경 계획 승인 최종 협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광주광역시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시외버스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창-광주간 버스 직통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해왔으며 현재 최종 협의 중에 있다.

최종적으로 전남도청에서 노선 변경 계획을 승인해 주면 내년 3월쯤에는 직통노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광주간 버스 직통노선 개설은 지난 2009년 담양고창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군이 지속적으로 시외버스 회사 측에 요청해왔으나 운행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추진이 쉽지 않았다.

군은 올 10월에도 전남도청과 시외버스 회사를 방문해 직통노선이 개설되면 버스 이용객들이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 수익도 증가될 것이라고 적극 설득했다.

버스 회사 측에서도 솔재를 지나 장성을 경유하는 현재의 노선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에 공감해 고창-광주간 직통노선 개설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고창-광주 직통노선이 개설되면 담양고창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며 현재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40분 정도로 줄어들고 요금도 51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창-광주 버스 직통노선이 개설되면 주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활성화와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로컬톡톡

고창군, 유충구제 방제사업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겨울철 모기유충 서식지인 지하집수정, 하수구, 정화조 등 모기유충 서식 예상지 49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적인 유충구제 방제사업을 실시한다.

모기 방역은 모기 유충이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인 유충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유충구제는 모기에서 성충으로 탈피를 억제해 월동 성공률을 감소시켜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모기박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해빙기 방역소독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하절기 모기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정한 고창, 깨끗한 고창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모기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모기 유충 서식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고창군 보건소에 문의(☎ 560-8716)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국민안전처로부터 13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이환주 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이 협력하여 국민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루어진 성과로, 재난안전수요인 산내 상황마을 세천 정비 5억원, 주천 방죽골 세천 정비 2억원, 덕과 소남정 뒷뜰 세천 정비 3억원, 사매 계동마을 세천 정비 3억원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의 안전예방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관계부서에 따르면 4건의 세천 정비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수년째 지연되왔던 사업으로, 마을 내 배수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등에 상습침수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해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소외계층 김장김치 전달

순창군 자원봉사센터(소장 임금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자원봉사자 집에서 '동절기 사람의 김장담기' 행사를 진행하고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30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섰다.

이번 사랑의 김장 담기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순창군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순창고등학교 학생, 임실?순창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순창읍대, 기동대), 순창경찰서타격대 의무경찰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해 2,500포기 배추를 절이고, 씻고는 등 김장담기 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에서는 김장담기에 필요한물품을 소방차로 공급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했다.

임금순 자원봉사센터장은 "3일간 정성으로 담은 김장은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고 밝히며, "오늘 김장 나눔행사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